

한국금융학회 동계(II) 정책심포지엄 개회사

김홍범 (한국금융학회 회장)

최근 수년간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각종 대형 금융사고를 겪었습니다. 한국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금융업에 종사하는 금융인은 물론, 금융정책과 규제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과 금융을 연구하는 학자들 모두, 한국 금융의 활로를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법의 모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특히 중요합니다.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당국은 규제규율 및 시장규율과의 적정 배합 속에서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과 시장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게임의 장을 조성합니다. 최근 정부는 “창조금융”을 금융의 미션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원래의 취지대로만 작동한다면, “창조금융”의 기치는 한국 금융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착한’ 금융환경의 핵심 메커니즘이 될 것입니다. 창조금융을 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는 요즘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이 너무 과로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사실 창조금융이라는 멋진 이정표를 확립한 정부 당국은, 너무 많은 일을 서둘러 벌이려하기보다는 게임룰의 정비와 네트워크의 촉진에서 자신의 창조성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창조금융을 직접 실천해야 하는 금융인들도 너무 과로하면 안 됩니다. 영국의 세계적 경제주간지 *The Economist*는 최근 한 칼럼(2013년 8월 17일자 이슈의 Schumpeter 칼럼)에서 ‘창조적이려면 한 템포 늦추라’는 조언을 CEO들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리닝인(Leaning-in)” 즉 일에 달려들어 올인하기보다는, “리닝백(Leaning-back)” 즉 일에서 조금 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창조금융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딱 들어맞는 처방전입니다. 금융인에게는 창조적 마인드가 생명이며, 그의 창조성은 자신이 세운 계획과 일에 대한 집착에서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 학회도 작년 하반기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리닝백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빨리빨리”의 뿌리 깊은 집착에서 한 발짝 물러나, 멀리 보며 문제를 진단하고 긴 호흡으로 해법을 탐색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해 10월부터 우리 학회는 “위기의 한국 금융: 문제, 해법과 미래 비전”을 대주제로 일련의 정책심포지엄을 격월로 개최해왔습니다. 오늘 동계(II) 정책심포지엄은 그 세 번째로, 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마련되었으며, 금융투자업과 보험업의 문제 및 해법을 집중 조명하는 발표와 토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오늘 세 편의 논문을 선보입니다. 이 글들은 학회가 위촉한 여러 분의 훌륭한 학자들이 지난 수개월간 독자적으로 진행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이 중 두 편은 금융투자업과 보험업의 경쟁력을 각각 진단하고 그 중장기 활로를 모색하는 연구이며, 나머지 한 편은 국내에서도 곧 활성화될 고빈도 주식 트레이딩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과 그 함의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입니다.

오늘 정책심포지엄은 학회 부회장이신 이연호 충북대학교 교수께서 지난 수개월 간 도맡아 기획·총괄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발표, 토론과 진행을 위해 학계는 물론 정책계, 업계와 국내외 연구기관의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황영기 신임 회장과 보험연구원의 강호 원장께서 각각 격려사와 환영사를 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창조적 금융환경의 조성을 위해 밤낮 없으신 신제윤 금융위원장께서는 기조연설로 이 자리를 빛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본 학회의 역대 회장과 회원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금융을 염려하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어 참석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후원해주신 매일경제신문에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이 자리가 금융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사회가 올바른 물음과 해법을 모색하며 토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